키워드로 보는 2019년 콘텐츠산업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은 지난해 12월에 2019년 콘텐츠산업을 전망하며, 6개 키워드를 선정하고 올해 주요 산업 흐름을 예측했다. 실제 6개 키워드인 ① 플랫폼 전쟁—인피니티 워, ② 우리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③ 환생—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④ 게임, 문화인가 질병인가 ⑤블록체인, 성장통을 겪다, ⑥ 노인을 위한 나라가 온다와 관련해 다양한 이슈가 나타났다. 이번 호에서는 이 중 다음 4개 키워드에 대해 살펴봤다.

김현호 엔씨소프트 플랫폼사업센터장이 5일 오전 서울 강남구 라움아트센터에서 열린 엔씨소프트 리니지2M 미디어 쇼케이스 '2nd IMPACT' 행사에서 게이밍 플랫폼 퍼플을 소개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 프로젝트 엑스클라우드.

플랫폼 전쟁, 인피니티 워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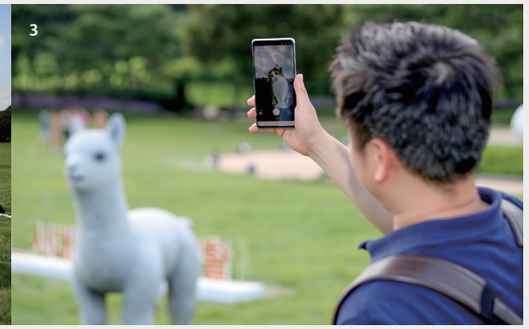
마이크로소프트(MS)가 10월 차세대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인 '엑스클라우드(xCloud)'의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한다. 엑스클라우드는 와이파이망 또는 모바일 네트워크를 통해 클라우드에서 직접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엑스박스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는 스트리밍 게임 서비스다.

MS는 지난 9월 24일 '인사이드 엑스박스'를 통해 초기에는 '기어스5', '헤일로5', '시 오브 씨브즈' 등 소수 게임으로 시작하고, 추후 서비스 타이틀을 늘려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초기 서비스 지역은 우리나라와 미국, 영국으로 한정했다. 우리나라는 고속 네트워크망이 활성화됐다는 점, 미국과 영국은 콘솔 최대 시장으로 평가받는다는 점이 서비스 지역 선정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엔씨소프트가 9월에 차세대 게임 플랫폼인 '퍼플(Purple)'을 공개했다. 퍼플은 모바일 게임을 PC에서도 즐길 수 있는 플랫폼으로, 이용자가 모바일로 게임을 하다가 PC로 넘어와 게임을 이어갈 수 있다. 올해 출시 예정인 모바일 신작 '리니지2M'은 퍼플 플랫폼을 적용하는 첫 게임이 될 예정이다. 리니지2M은 4K UHD(3840x2160)급 해상도의 풀 3차원(3D) 그래픽으로 출시된다. 퍼플을 활용하면 PC 화면에서도 고화질로 즐길 수 있다.

퍼플은 모바일 게임을 PC로 즐기는 것 외에 △음성 소통 △라이브 스트리밍 △대규모 채팅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예로 라이브 스트리밍 기능을 활용하면 별도 프로그램 설치 없이 자신이 플레이하는 화면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다. 또 다른 이용자의 스트리밍 영상을 시청하다가 게임 파티원으로 합류할 수 있다.

1 울산대교 전망대 VR, 대왕암공원 AR 콘텐츠 제작발표회.
2, 3 올림픽공원 88잔디마당 내에 SK텔레콤이 마련한 AR 동물원.



우리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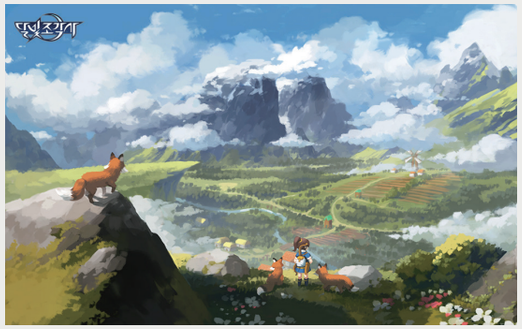
5G 기술 상용화 속도가 점차 빨라지는 가운데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가 다양해지고 있다.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은 관광 산업에서의 활용이다.

울산시는 지난 9월 25일 '대왕암공원 AR 및 울산대교전망대 VR 콘텐츠 제작 발표회'를 열고, 주요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 AR/VR 콘텐츠를 활용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대왕암공원, 일산해수욕장, 슬도, 울산대교 전망대 등 지역 주요 관광지 콘텐츠를 AR/VR 기술과 접목해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개발했다.

예로 대왕암공원 내 울기등대, 고래 턱뼈, 수루방 등 9곳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면 관광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게임이 실행된다. 이용자는 울산시 주요 관광지를 돌아다니며 AR 게임을 즐길 수 있다. 4D 입체영상을 통해 울산대교와 주전몽돌해변 등 주요 관광지를 고공비행하는 VR콘텐츠도 있다. 울산시 AR/VR 콘텐츠는 10월에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지난 8월 'AR 동물원' 콘텐츠를 선보였다.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면 선택한 동물이 바닥 위에 나타난다. AR동물원을 체험할 수 있는 장소는 서울 여의도공원을 비롯해 올림픽공원, 대전 보라매공원, 대구 두류공원, 광주 5·18공원 등 전국 10여 곳이다. 자이언트 캣과 자이언트 비룡 같이 거대한 동물은 지정 장소에서만 체험할 수 있다. 하지만 강아지 같이 작은 동물은 집이나 사무실, 어느 곳에서나 소환할 수 있다.

드라마 킹덤의 한 장면. ⓒ넷플릭스



게임으로 출시된 웹소설 달빛조각사. ⓒ카카오게임즈

환생,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03

플랫폼이 다양해지면서 IP(지식재산권)가 색다른 모습으로 변신하고 있다. 넷플릭스의 인기 드라마 '킹덤'은 내년 초에 게임으로 재탄생한다. 9월 25일 모바일게임 기업 데이세븐은 킹덤 IP를 활용해, 2020년 1분기에 게임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이세븐은 지난 5월 킹덤의 제작사인 에이스토리와 IP 사용 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꾸준히 게임을 개발하고 있다. 한편, 내년 1월 드라마 킹덤이 새로운 시즌으로 돌아올 예정이다. 게임 킹덤은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드라마 방영 시점에 맞춰 출시 일정을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게임즈는 지난 10월 10일 엑스엘게임즈가 개발한 '달빛조각사'를 정식 출시했다. 게임 달빛조각사는 지난 13년이라는 연재 기간 동안 팬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은 판타지 웹소설 달빛조각사의 IP를 기반으로 제작된다. 웹소설 달빛조각사는 카카오페이지 기준 53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대형 IP로, 게임 성공 가능성에도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 밖에 인기 웹툰 IP가 드라마로 재탄생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천계영 작가의 다음 웹툰 '좋아하면 울리는'은 넷플릭스 드라마로 제작돼 지난 8월 방영을 시작했다. '좋아하면 울리는'은 좋아하는 사람이 반경 10m 안에 들어오면 알람이 울리는 '좋알람' 애플리케이션이 개발된 뒤, 알람을 통해서만 마음을 표현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세상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세 남녀의 로맨스를 담고 있다.

2018년 다음 웹툰 조회수 1위, 매출액 1위를 기록한 웹툰 '이태원 클라쓰'는 JTBC 드라마로 제작돼 방영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 이태원 클라쓰는 이태원에서 각자의 가치관으로 자유를 쫓는 청년들의 창업 신화 내용을 담고 있다.

2019 대한민국 게임포럼 현장에서 인사말을 하는 조승래 의원.

9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게임포럼.

게임, 문화인가 질병인가

04

지난 5월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 이용 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하면서 2022년 게임 질병 코드(Gaming Disorder)가 국내에 부여될 예정이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WHO의 결정에 반대하는 의견이 우세하다.

지난 9월 25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와 한국방송학회는 '게임이용 장애 질병 코드화가 게임 방송 광고시장에 미치는 영향 연구'를 발표했다. 인기협이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내에 게임 질병 코드가 도입될 경우 첫 해는 269억 원, 둘째 해 422억 원, 셋째 해 565억 원 등 3년간 총 1256억 원 가량의 게임 방송광고비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방송학회는 국내에 게임 질병 코드가 정식으로 도입되면 방송광고비 감소액이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방송학회는 게임 질병 코드 정식 도입이 중독물질의 광고 규제법과 소비자 인식 악화로 이어지고, 방송광고 시장에 악순환을 초래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내 게임 산업을 위한 목소리는 정치권에서도 이어졌다. 지난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2019 대한민국 게임포럼' 행사에서 주최자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대한민국 게임포럼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이 국내 게임 산업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게임포럼은 게임에 관한 인식을 개선하고, 게임 산업 진흥을 위해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는 단체다. 게임포럼 소속 의원들은 국내 게임 질병 코드 국내 도입과 게임 인식 개선을 위해 지원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들은 문화와 예술계, 의료계에도 의견을 피력할 예정이다.